



해남군은 최근 각 실과소별 올해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를 비롯해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회를 진행하며 깨끗하고 일 잘하는 군정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 구현 총력

### 실과소별 업무보고회...하반기 추진계획 등 점검나서 농식품기후변화센터 설립 등 국·도비 3천414억 확보

해남군이 민선 8기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을 목표로 깨끗하고 일 잘하는 군정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각 실과소별 올해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를 비롯해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회를 진행했다.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주요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군의 새로운 동력이 될 주요 사업들에 대해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우수(SA) 5년 연속 달성, 전남도 내 유일 5년 연속 청렴도 2등급 달성에 이어 재정집행 평가 전국 1위 등 각종 평가 지수에서 최상위권을

지키며 깨끗하고 유능한 군정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ESG 경영을 군정에 도입해 ‘해남형 ESG 윤리경영’을 민선 8기 군정의 주요 운영 방침으로 설정하고 청정해남(E), 함께하는 안전사회(S), 신뢰행정 구축(G)을 목표로 군정장기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 2022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전국 시군 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해 국내의 경제적 어려움 속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내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올해 국·도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 3천414억원을 확보하며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과 어란진 국가어항 확장사업, 김치 원료 공급단

지 조성,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 등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상반기에는 누적판매액 5천억원 돌파로 전국 군단위 최대 발행 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과 해남매일시장 재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해남미소 및 로컬푸드 판매 확대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눈에 띄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단·발전단지 구축과 함께 투자유치가 잇따르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재도약의 나래를 펴고 있으며 화원산단 풍력발전 배후단지 개발 등 지역의 미래를 바꿀만한 대규모 사업들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반기에는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전국 최초 농업인 기숙사 건립 ▲수산 지자체 특화단지 조성 등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어린이 공공과학체험관

개관과 땅골곰김랜드 조성 ▲우수영 유스호텔 리모델링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조성 ▲목포구 등대 관광자원화 사업 ▲복합무지업파크 건설 등 문화관광분야의 주요 사업들을 역점 추진할 방침이다. 상반기 땅골가족어울림센터가 개관했고 해남교육재단이 설립된 가운데 청년 공공임대주택건립, 작은학교 살리기 선진모델 구축 등 인구감소 대응 전략사업과 장학사업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교육재단 운영을 통한 교육도시 조성 등 살기좋은 해남만들기를 위한 기반사업도 착실히 추진한다. 명현관 군수는 “군정 전 분야에 걸쳐 발전적 변화를 만들고 있다”며 “올해는 으뜸해남을 향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해인 만큼 군민들이 군정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하고 주요 현안 사업들을 누수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 무안, 장난감도서관 회원 추가모집

무안군은 18일 “19-22일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100명을 선착순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추가 모집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만 5세 이하의 아동 보호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연회비 1만원을 납부하면 올해 말까지 무료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주말·공휴일은 휴무다. 군은 지난 1월 250명의 신규 회원을 모집했으며 연령대별로 선호도가 높은 최신 인기 장난감 100여점을 추가로 구입해 영유아의 다양한 놀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 2021년부터 무료 택배 서비스를 운영해 입산부, 맞벌이 부부, 원거리 거주 등 장난감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회원이 자택에서 편리하게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장난감을 선택하면 무료로 장난감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며 회당 2점의 장난감을 최대 3주간 대여할 수 있다. 무안군 신도시지원단장은 “총 1천200여점의 다양한 장난감 대여로 영유아의 정서·신체적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조금이나마 해소될 길 바란다”며 “하반기에는 무안읍에 장난감도서관을 추가로 개관해 자녀 양육하기 좋은 무안군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나주시가 UAE 현지 한인 유통업체인 '1004 GOURMET'에서 100만달러 규모의 농특산물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 제공)

## 윤병태 나주시장, UAE 농특산물 수출 세일즈

### 두바이 현지서 유통업체와 100만달러 협약 aT 두바이지사 방문...한우 등 판로 모색

윤병태 나주시장의 지역 농특산물 수출 발표 세일즈가 또 한 번 빛을 받았다. 지난해 미국 한인 유통업체에 이어 올해엔 중동 물류의 허브 아랍에미리트(UAE)에 농특산물 수출길이 열렸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윤병태 시장이 출국해 UAE 현지 한인 유통업체인 '1004 GOURMET'에서 100만달러 규모 농특산물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방문단에는 김해원 시의원과 수출 참여 업체인 나주배원농협, 골든힐, 안도물산, 가보팜스 대표, 유통행정팀 직원 등 11명이 함께 했다. 첫날 공식 일정으로 주두바이 대한

민국 총영사관을 찾아 문병준 총영사관과 면담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수출, 판로 확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시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UAE와 절충교역 참여 비용을 나주배 2천만원 어치를 대신 지급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또 나주시와 1004 GOURMET은 나주산 농·수산물 두바이 현지 유통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농특산물 판로 확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한국농수산물공사(aT) 두바이 해외지사에서도 UAE 대형 유통법인 'Union Coop' 구매팀장, 바이어

등과 농산물 수출 판로 모색을 위한 상담회를 주재했다. 윤 시장과 방문단 일행은 UAE 최대 규모 청과물 시장(Central Fruits and Vegetables Market)도 탐방했다. 특히 시장 내 aT가 지원·운영하는 한국산 신선농식품 홍보관인 'K-Fresh zone'을 방문해 나주 농·특산물 현지 홍보와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관계자 협의를 진행했다. 윤병태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2024년부터 수출 물류비 지원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수출 농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약을 계기로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 완도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663명 배정

### 상반기 포함 1천672명 도내 최다...농어가 등에 순차적 배치

완도군은 18일 “최근 법무부로부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663명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상반기 인원을 합산해 전

남도 내 총 배정 인원 7천611명 중 가장 많은 인원인 1천672명을 배정받아 인력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관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군에는 5월 말까지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900여 명이 다시마 생산 어가를 비롯한 농·어가에 배치돼 근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고용주의 수요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군은 김, 미역, 다시마, 톳 등 본격적인 수산양식 시설을 설치 시기에 맞춰

일손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해 농·어업인에게 원활한 인력 공급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 “전남도민 30년 염원 의과대학 신설돼야”

### ‘국립의대 전남 유치 추진위’ 성명 발표...캠페인도 결의

국립의과대학 전남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칭·이하 추진위)는 “지난 16일 목포시청에서 국립의과대 전남 유치, 부속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진위는 “국민 누구나 균형있고 평등한 의료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전남도민의 30년 염원인 의과대학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 정원 확대에 합의하고도 대한의사협회의 의대 신설 불가 입장으로 전남권의 의대 설립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며 대한의사협회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추진위는 “의료 시설이 없는 전국의

섬 가운데 60%가 전남에 있고 초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날로 커져 간다”며 “국민 모두는 평등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의료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0년 동안 헌법에 명시된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염원해 왔으나 전남의 의료 현실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의정협의의 의대 정원확대가 결정된 만큼 의미 없는 전남의 의대신설은 공평이고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공론화 기구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며 20만 전남도민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전남권 의대 유치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 강진군, AI 활용 이미지 생성...예산 절감

### 가우도 청자타워 소재 웹소설 삽화 첨부 신규 표지·광고물 등 장보고 캐릭터 생성

강진군이 군정 홈페이지에 연재 중인 청자를 활용한 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 제작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생성 이미지는 개방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웹소설 제작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미드저니(mid-journey)와 빙(bing) 이미지 크리에이터, 명령어 입력 후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해 활용 중이다. 이를 통해 강진 가우도 청자타워를 소재로 웹소설의 신규 표지 및 광고물을 제작하고 독자 이벤트·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장보고 장군 캐릭터’(사진)를 생성하는 등, 매주 웹소설에 삽화를 첨부해 구독자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군은 AI 활용으로, 원고료 이외의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아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생성된 이미지는 ‘공공저작물 1유형’으로 개방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사업비 절감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 부흥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모범사례를 계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정영록 기자



## 함평기업 ‘안개핀조경’ 조달청혁신제품 인증 청와대 춘추관·부산 해운대 ‘쿨링포그’ 설치

함평군 토종기업 안개핀조경(주)이 청와대 춘추관 일원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납품 완료했다. (사진)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조달청혁신제품 인증을 받은 안개핀조경 쿨링포그 시스템은 이번 청와대 설치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여름에도 시원한 청와대 관람 길을 제공하게 됐다. 청와대 춘추관은 야간 개장을 통해서도 조명과 어우러진 시원한 관람을 제공한다. 쿨링포그는 주변온도·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안개 형태로 물을 분사시키는 장치로 해외에서는 20여년 전부터 설치된 야외 증발냉방장치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또한 경관조명 쿨링포그가 주야간으로 가동돼 피서객과 관광객들에게 쉬었다가는 휴식처로 인기를 더하고 있다. 그동안 쿨링포그 제품들은 해외제품 의존도가 높았지만, 안개핀조경(주)은

각종 특허 및 우수발명품 인증 등 국산화를 주력으로 혁신제품 지정까지, 기술력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앞장섰다. 안개핀조경(주)의 혁신제품은 11종의 상품이 조달청혁신제품으로서 판매되고 있다. 안개핀조경의 쿨링제품은 경관조명과 조형물을 결합시킬 수 있는 기술 특허로 이뤄져 있어 국내시장에 맞게 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다. 전국 지사망을 개설해 제품의 설치와 유지 보수에 도전권을 가지고 있다. 신재현 안개핀조경(주) 대표는 “지난 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이어 청와대 및 해운대까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20여 공공장소에 안개핀 제품이 설치되는 영광을 이뤘다”며 “엘니뇨 현상 등으로 뜨거워지는 현상에 한발 더 나아가 다양한 제품군들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